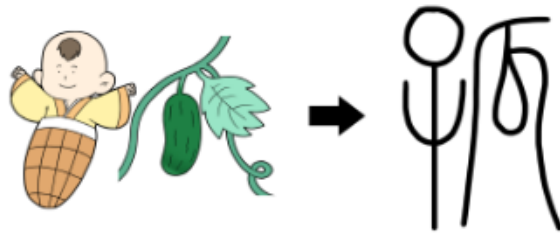


회의문자①



孤

외로울  
고

孤자는 '외롭다'나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孤자는 子(아들 자)자와 瓜(오이 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瓜자는 덩굴줄기에 매달려 있는 열매를 그린 것이다. 孤자는 이렇게 열매가 덩그러니 매달려있는 모습을 그린 瓜자에 子자를 결합한 것으로 '외롭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열매가 홀로 매달려 있는 모습을 외롭고 고독한 아이와 연관시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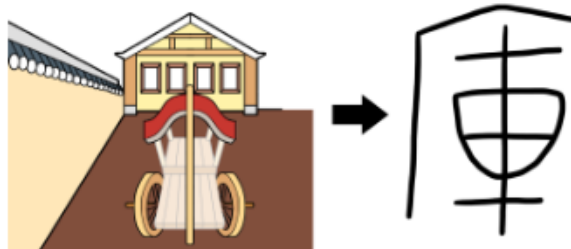
孤

소전

孤

해서

회의문자①



庫

곳집 고

庫자는 '곳집'이나 '곳간', '창고'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庫자는 广(집 엄)자와 車(수레 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車자는 바퀴가 달린 수레나 마차를 그린 것이다. 이렇게 수레를 그린 車자에 广자가 결합한 庫자는 수레를 보관하는 '창고'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수레나 전차를 보관하던 창고는 규모가 매우 컸었다. 그래서 庫자는 비교적 규모가 큰 창고를 뜻한다.

庫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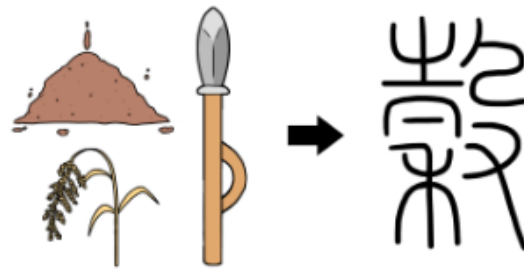
庫

소전

庫

해서

## 회의문자①



穀

곡식 곡

穀자는 '곡식'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穀자는 禾(벼 화)자와 𥽿(겉질 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𥽿자는 단단한 '겉질'을 벗기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穀자는 벼나 조, 수수처럼 단단한 겉질이 있는 곡식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로 겉질을 벗기는 모습을 그린 𥽿자에 禾자를 결합해 도리깨로 낱알을 벗겨야 하는 곡식을 뜻하고 있다. 참고로 穀자는 𥽿자가 아닌 禾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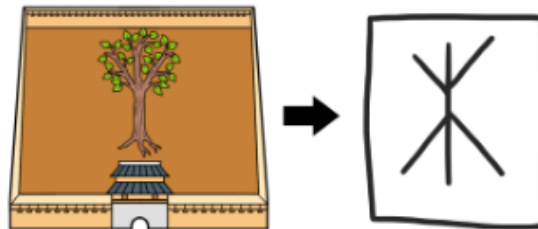
穀

소전

穀

해서

## 회의문자①



困

곤할 곤:

困자는 '괴롭다'나 '지치다', '곤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困자는 口(에운담 위)자와 木(나무 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이것은 정원에 나무를 심어놓은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정원에 심어놓은 나무는 집안과 대문 사이의 경계선 역할을 했다. 그래서 困자는 본래 '문지방'이나 '문턱'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하지만 후에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지치다'나 '괴롭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었다. 困자의 뜻이 바뀌면서 여기에 木자를 더한 𡩇(문지방 곤)자가 '문턱'이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困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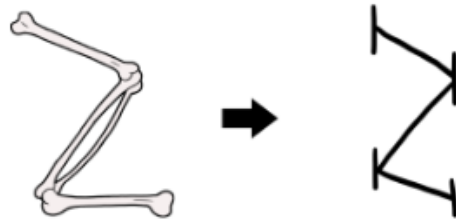
困

소전

困

해서

회의문자①



骨

뼈 골

뼈자는 '뼈'나 '골격', '몸'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갑골문에서의 뼈자는 뼈와 관절이 서로 이어져 있는 𠂔 모습이었지만, 금문에서는 여기에 肉(고기 육)자가 더해져 뼈와 살을 함께 표현하게 되었다. 이처럼 뼈자는 뼈와 살을 함께 그린 것이지만 단순히 '뼈'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뼈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뼈'나 '신체'와 관련된 의미를 전달한다.

𠂔

갑골문

𠂔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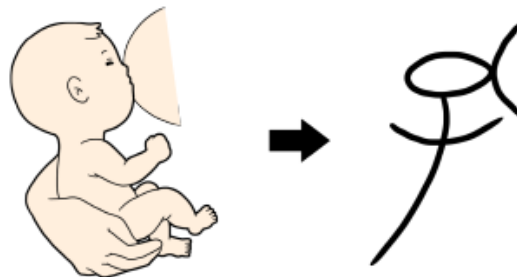
𠂔

소전

骨

해서

회의문자①



孔

구멍 공:

孔자는 '구멍'이나 '비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孔자는 子(아들 자)자와 乚(숨을 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乚자는 뜻과는 관계없이 어미의 젖가슴을 표현하고 있다. 孔자의 금문을 보면 어린아이가 무언가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 모습이 𠂔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아이가 어미의 젖을 빠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孔자는 본래 '젖가슴'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하지만 지금의 孔자는 주로 공자를 대표하는 글자로 쓰이고 있다.

𠂔

금문

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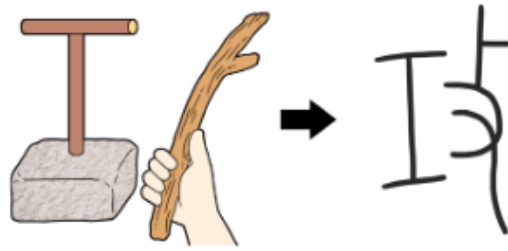
소전

孔

해서

4  
-  
37

# 회의문자①



攻

칠[擊]  
공:

攻자는 '치다'나 '때리다', '공격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攻자는 工(장인 공)자와 攴(칠 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工자는 땅을 단단하게 다지는 도구인 '달구'를 그린 것이다. 攻자는 이렇게 땅을 세차게 내리치는 도구를 그린 工자에 攴자를 결합한 것으로 무언가를 세차게 공격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본래 攴자에 '때리다'라는 뜻이 있기는 하지만 攻자는 이보다 더 거세게 공격하는 것을 뜻하기 위해 만들어진 글자로 이해해야 한다.

攻

금문

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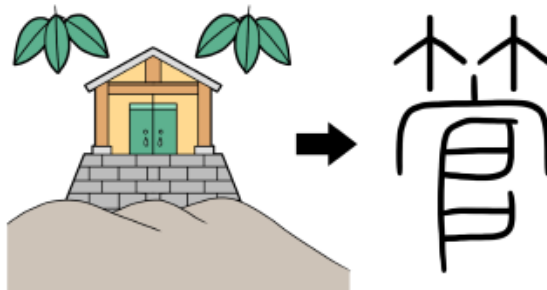
소전

攻

해서

4  
-  
38

# 형성문자①



管

대롱/주  
관할 관

管자는 '대롱'이나 '주관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管자는 竹(대나무 죽)자와 官(벼슬 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官자는 높은 곳에 지어진 관사를 그린 것으로 '벼슬'이라는 뜻이 있다. 管자는 본래 육공악기(六孔樂器)로 불리던 악기의 일종을 뜻했었다. 대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竹(대나무 죽)자가 의미요소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管자는 이렇게 피리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지만 지금은 주로 '말다'나 '주관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이는 발음요소로 쓰인 官자의 의미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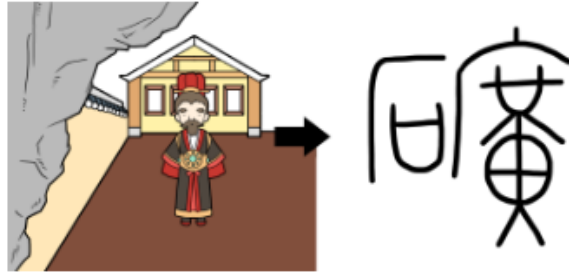
管

소전

管

해서

형성문자①



鑛

쇳돌 광:

鑛자는 '쇳돌'을 뜻하는 글자이다. 鑛자는 金(쇠 금)자와 廣(넓을 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廣자는 '넓다'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鑛자에서 말하는 쇳돌이란 쇠가 붙어있는 돌을 말한다. 자연 상태에서는 돌덩이와 쇠가 함께 뒤섞여있는데, 쇠를 얻기 위해서는 이 쇳돌에 열을 가해 광석을 연소시켜야 한다. 그러면 찌꺼기는 위로 뜨고 순수한 금속은 밑으로 가라앉아 분리된다. 이 작업을 하는 장치가 바로 용광로(鑛鑪)이다. 그래서 소전까지만 하더라도 쇠가 붙어있는 돌을 뜻하기 위해 石(돌 석)자가 들어간 鑛(쇳돌 광)자가 쓰였었다. 하지만 해서에서부터는 金자가 들어간 鑛자가 '쇳돌'이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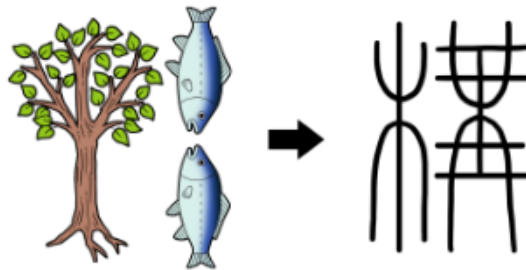
鑛

소전

鑛

해서

회의문자①



構

엮을 구:

構자는 '엮다'나 '엮어 짜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構자는 木(나무 목)자와 冎(잘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冎자는 물고기 두 마리가 서로 엉켜있는 冎 모습을 그린 것으로 '짜다'라는 뜻이 있다. 構자는 본래 목조건물의 도리를 엮어 만든 '서까래'를 뜻했었다. 서까래는 건물의 골격이 완성된 이후 도리와 도리를 서로 엮어서 만들었는데, 構자는 그렇게 나무를 서로 엮어 낸다는 의미에서 '짜다'라는 뜻의 冎자에 木자를 결합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금의 構자는 주로 '(생각을)엮어 짜내다'나 '(거짓을)꾸며대다'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構

소전

構

해서